

Original Article

근무기관에 따른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건강상태, 번아웃증후군에  
관한 연구: 서울시 지역을 중심으로

신영일, 박재명<sup>1)</sup>, 김진영<sup>2)</sup>

한경국립대학교 의료보장구학과, 서울의료원 물리치료실<sup>1)</sup>, 전주비전대학교 물리치료과<sup>2)</sup>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and Burnout Syndrome of  
Orthopedic Physiotherapists According to the Working  
Institution: Focusing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Young-il Shin, Jae-myung Park<sup>1)</sup>, Jin-young Kim<sup>2)</sup>

*Dept. of Prosthetics & Orthotics,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Physical Therapy, Seoul Medical Center<sup>1)</sup>*

*Dept. of Physical Therapy, Jeonju Vision University<sup>2)</sup>*

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compared orthopedic physiotherapists from different working institutions regarding their health status and burnout syndrome to understand the work-related factors that affect health status and burnout syndrome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October 28 to November 13, 2022, focusing on physiotherapists working in medical institutions located in metropolitan areas, such as Seoul, Gyeonggi, and Incheon. A total of 591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questions related to the basics of physical therapy, general matters, types of working institutions, health conditions, and burnout syndrome.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detected in health self-awareness status whether the working institution was a clinic, nursing hospital, hospital, oriental hospital, general hospital, or university hospital. Among the burnout factors, nursing hospitals showed the highest scores for retirement demands, work unfavorability, physical fatigue, mental fatigue, and reasons for work because of salary. By contrast, university hospitals showed the highest enthusiasm and other institutions showed the lowest enthusiasm for work. In particular, in terms of enthusiasm, scores were significantly more positive in university hospitals than in other institutions.

**Conclusion:** A management plan for burnout for orthopedic manual physiotherapists working in nursing hospitals is needed, and future research will examine the health status of orthopedic manual physiotherapists and work that may affect burnout syndrome. An exploration of management measures, such as health promotion and burnout syndrome prevention, is needed that adds other items, such as differences in environment and differences in the number and disease severity of patients

Key Words

Orthopaedic Manipulative Physiotherapists, Burnout Syndrome, State of Health

## I. 서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을 3년 이상 지내오면서 물리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많은 물리치료사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다양한 변화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물리치료사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였으며, 건강과 함께 심리적으로도 다양한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심리나 정서적인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번아웃증후군이나 우울감 등이다. 번아웃증후군의 경우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 심리-신체적인 극도의 피로감을 보이며, 불안, 좌절, 피로, 우울증, 불면증, 의욕 상실, 부정적인 자아 개념, 회의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Kim, 2015). 이러한 증상은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반응의 결과로 심리적 증상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발현되어 나타나게 된다(Ahola 등, 2010).

중추신경계나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치료는 여러 분야로 분류가 가능하며, 영역별 분류는 정형외과 영역을 골절 후 운동장애 및 기능장애, 관절염, 염좌, 테니스 엘보우 관절 장애, 오십견, 척추 측만증, 골반 및 척추변형, 자세 교정, 스포츠 손상 중 관절 및 인대 손상, 퇴행성 질환으로 하고 있으며, 재활의학과 영역은 소아마비, 뇌성마비, 뇌 및 척추손상 후유증, 절단 후 일상생활 동작 운동 기능장애, 근위축, 기타 재활에 필요한 물리치료, 기타 영역은 연부 조직 손상(타박상, 근좌상, 근염, 근육통 등) 인대, 산전·산후조리, 스포츠 손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형계물리치료 분야를 국제정형도수물리치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thopaedic manipulative physiotherapists)의 정의에 따라 정형도수물리치료는 임상적 추론에 기반한 신경-근골격 상태 관리를 위한 물리치료/물리치료의 전문 분야로, 도수치료와 치료적 운동을 포함한 매우 구체적인 치료 접근법을 사용하는 물리치료 분야로 정의하였다(IFOMPT, 2023).

근골격계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손상(impairment)과 기능적 제한(functional limitation) 그리고 장애(disability) 또는 기타 질병과 관련되어 근골격계 통증이 발생하는 환자를 진단하고, 통증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중재(intervention)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한다. 근골격계 물리치료 범주 내 검사는 전반적으로 관절가동범위, 도수근육검사, 관절가동성, 자세 등이 있다(Korea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2023).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형도수물리치료를 적용하게 되는데 환자에 적용하는 영역은 매우 다양하며 기능적 마시지, 마사지부터 관절 가동술 및 교정까지 광범위한 기법과 치료적 운동이 포함된다(Park, 2013).

정형물리치료사는 대부분의 근무 시간 동안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직접 대하며 환자의 관절 운동의 움직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양적으로도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절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치료이며 신경의 긴장 조절 및 가동성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만족과 태도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질병과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 주위 동료 등과의 대인관계가 좋지 않을 때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환자의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전문 지식과 치료 기술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직 종사자인 물리치료사는 장시간의 통증 환자 대면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소진에 쉽게 노출된다.

물리치료사의 개인적 문제는 대인관계 차원에서 가족이나 동료, 환자 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물리치료실이나 병원 등 차원에서 직무만족·조직 몰입 저하, 결근, 이직, 사직, 부정적 직무 태도 등 기업 조직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Brewer와 Clippard, 2002). 번아웃증후군은 심리·신체적인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불안과 좌절, 피로, 걱정, 우울증, 불면증, 무기력, 회의감 등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면서 개인적 문제로 발현된다(Kim,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치료사 중 정형계 물리치료사의 근무 기관에 따른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건강 상태, 번아웃증후군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정형계 물리치료사의 심리적 안정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개선, 나아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찾고 마련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

으며, 이들 중에서 정형계물리치료 종사자의 설문지를 선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표본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 효과 크기 .15로 하였을 때 표본 수는 최소 204명이었다(Kim과 Yu, 2023).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 개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작성이 완료된 1785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형도수물리치료사 분야에 근무하지 않거나, 설문 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1,194부의 설문지를 제외하였으며 최종 591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조사의 설문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의 기본사항 관련 문항, 일반적 사항 문항, 직업 관련 문항, 근무 만족도 문항, 이직 관련 문항, 근무 및 연차, 업무 관련,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으로 구성하였다.

물리치료사 등에 대한 현황, 심신 건강 등을 묻는 문항은 관련 문헌의 검토를 통해 선행 연구(Kim 등, 2018)에서 사용된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참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내용은 물리치료사의 현황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기본사항 4문항, 일반적 사항 4문항, 직업 관련 11문항, 근무 만족도 10문항, 이직 관련 5문항, 근무 및 연차 2문항, 업무 관련 3문항, 건강 및 심리 상태 9문항 기타 1문항 등으로 이루어진 9가지 영역의 4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Kim과 Seo, 2019; Kim 등, 2018). 각각의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근무 만족도와 심리 건강 상태에 대한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통계프로그램 SPSS 25.0 for Mac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값으로 빈도분석을 통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정형도수물리치료 인식과 관련된 사항에서 성별, 학년, 나이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 Kruskal- Wallis 검정을 실행하였다. 통계학적 유의 수준은  $\alpha=.05$ 로 설정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로는 남성이 376명(63.6%), 여성이 215명(36.4%)이었다. 나이대별로는 20~24세가 13명(2.2%), 25~29세는 153명(25.9%), 30~34세는 202명(34.2%), 35~39세는 92명(15.6%), 40~44세는 54명(9.1%), 45~49세는 38명(6.4%), 50~54세는 26명(4.4%), 55~59세는 10명(1.7%), 60세 이상은 3명(0.5%)이었다. 학력은 전문 학사 176명(29.8%), 학사 320명(54.1%), 석사 87명(14.7%), 박사 5명(0.8%)이었다. 근무 형태는 의원이 328명(55.5%), 병원이 137명(23.2%), 요양병원이 20명(3.4%), 한방병원이 22명(3.7%), 대학병원이 29명(4.9%), 종합병원이 38명(6.4%), 기타 17명(2.9%) 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Fq(n)	Pct(%)
Sex	Male	376	63.6
	Female	215	36.4
Age	20~24	13	2.2
	25~29	153	25.9
	30~34	202	34.2
	35~39	92	15.6
	40~44	54	9.1
	45~49	38	6.4
	50~54	26	4.4
	55~59	10	1.7
	60 over	3	.5
Education	Pro Bch	176	29.8
	Bachelor	320	54.1
	Master	87	14.7
	Doctor	5	.8
Hospital	Clinic	328	55.5
	Hospital	137	23.2
	Nur H	20	3.4
	Ori H	22	3.7
	Gen H	29	4.9
	Uni H	38	6.4
	etc.	17	2.9
Total		591	100.0

Fq: Frequency, Pct: Percentage, Pro Bch: Professional bachelor, Nru H: Nursing hospital, Ori H: Oriental hospital, Gen H: General hospital, Uni H: University hospital

## 2.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근무 형태에 따른 건강 상태에 관한 분석

### 1) 건강 자각 상태

근무 형태에 따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건강하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3.40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이 3.45점, 의원이 3.42점이었고, 한방병원이 3.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근무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현재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 나의 건강은 나빠졌다.”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3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한방병원이 3.32점, 병원이 3.31점, 기타 3.18점, 요양병원 3.15점, 의원 3.05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이 3.03점 순이었다. 근무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나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에 대한 평균 점수는 3.03점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이 3.25점, 병원이 3.20점, 기타 3.12점, 종합병원 3.08점, 한방병원 3.05점, 의원 2.96점, 대학병원 2.86점 순이었다. 근무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Table 2.**  
Health perception status according t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1	2	3	4	5	Avg
Clinic	8	62	96	108	54	3.42
Nur H	1	3	4	10	2	3.45
Hospital	6	18	46	53	14	3.37
Ori H	0	6	7	8	1	3.18
Gen H	1	7	11	12	7	3.45
Uni H	2	2	11	10	4	3.41
etc.	0	4	4	8	1	3.35

1: Not at all, 2: Not like that, 3: Commonly, 4: Yes, 5:Very Yes, Avg: Average 5points, Nru H: Nursing hospital, Ori H: Oriental hospital, Gen H: General hospital, Uni H: University hospital

**Table 3.**

Whether your health has deteriorated after working at your current job according t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1	2	3	4	5	Avg
Clinic	29	89	84	89	37	3.05
Nur H	1	4	7	7	1	3.15
Hospital	6	27	41	44	19	3.31
Ori H	0	5	7	8	2	3.32
Gen H	3	9	12	12	2	3.03
Uni H	1	10	9	5	4	3.03
etc.	1	3	5	8	0	3.18

1: Not at all, 2: Not like that, 3: Commonly, 4: Yes, 5:Very Yes, Avg: Average 5points, Nru H: Nursing hospital, Ori H: Oriental hospital, Gen H: General hospital, Uni H: University hospital

**Table 4.**

Degree of negative impact of work on health according t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1	2	3	4	5	Avg
Clinic	27	103	83	87	28	2.96
Nur H	0	3	9	8	0	3.25
Hospital	7	31	39	48	12	3.20
Ori H	1	4	11	5	1	3.05
Gen H	3	9	12	10	4	3.08
Uni H	3	9	10	3	4	2.86
etc.	2	1	7	7	0	3.12

1: Not at all, 2: Not like that, 3: Commonly, 4: Yes, 5:Very Yes, Avg: Average 5points, Nru H: Nursing hospital, Ori H: Oriental hospital, Gen H: General hospital, Uni H: University hospital

### 2) 번아웃(직무소진)에 관한 분석

근무 형태에 따라 “나는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느낀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8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기타 기관이 3.53점, 요양병원이 3.30점, 병원이 3.28점, 한방병원이 3.27점, 의원 3.16점, 종합병원 3.05점, 대학병원 2.76점 순이었다. 근무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5).

근무 형태에 따라 “나는 내일 출근하기 싫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3.26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한방병원과 기타 기관이 3.41점, 요양병원이 3.35점, 종합병원 3.259점, 병원과 의원이 3.26점, 대학병원 2.97점 순이었다. 근무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6).

근무 형태에 따라 “나는 육체적으로 지쳐있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3.3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요양병원이 3.60점, 한방병원 3.50점, 기타 3.41점, 의원 3.34점, 종합병원 3.26점, 병원 3.24점, 대학병원 2.86점 순이었다. 근무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7).

근무 형태에 따라 “나는 정신적으로 지쳐있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3.3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요양병원이 3.60점, 한방병원 3.50점, 기타 3.41점, 의원 3.34점, 종합병원 3.26점, 병원 3.24점, 대학병원 2.86점 순이었다. 근무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8).

근무 형태에 따라 “왜 일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3.69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요양병원이 4.00점, 요양병원과 병원이 3.80점, 기타 기관이 3.76점, 종합병원 3.66점, 대학병원 3.14점 순이었다. 근무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9).

근무 형태에 따라 “나는 현재 하는 업무에 대해 어떤 의미나 열정도 못 느낀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2.68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점수는 기타 기관이 3.24점, 요양병원이 3.05점, 한방병원 2.95점, 종합병원 2.79점, 병원 2.70점, 의원 2.63점, 대학병원 2.21점 순이었다. 근무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table 10).

**Table 5.**  
Grade of wanting to quit work according t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1	2	3	4	5	Avg
Clinic	31	81	74	87	55	3.16
Nur H	0	5	8	3	4	3.30
Hospital	9	27	41	36	24	3.28
Ori H	0	4	11	4	3	3.27
Gen H	3	8	14	10	3	3.05
Uni H	3	13	4	6	3	2.76
etc.	2	1	4	6	4	3.53

1: Not at all, 2: Not like that, 3: Commonly, 4: Yes, 5:Very Yes, Avg: Average 5points, Nru H: Nursing hospital, Ori H: Oriental hospital, Gen H: General hospital, Uni H: University hospital

**Table 6.**  
Grade for not want to go to work tomorrow according t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1	2	3	4	5	Avg
Clinic	34	66	73	90	65	3.26
Nur H	1	5	4	6	4	3.35
Hospital	9	36	31	33	28	3.26
Ori H	0	5	8	4	5	3.41
Gen H	2	7	12	12	5	3.29
Uni H	3	10	5	7	4	2.97
etc.	2	2	4	5	4	3.41

1: Not at all, 2: Not like that, 3: Commonly, 4: Yes, 5:Very Yes, Avg: Average 5points, Nru H: Nursing hospital, Ori H: Oriental hospital, Gen H: General hospital, Uni H: University hospital

**Table 7.**  
Degree of physically exhaustion according t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1	2	3	4	5	Avg
Clinic	24	71	69	96	68	3.34
Nur H	1	3	4	7	5	3.60
Hospital	7	35	39	30	26	3.24
Ori H	0	3	9	6	4	3.50
Gen H	2	8	12	10	6	3.26
Uni H	3	11	6	5	4	2.86
etc.	2	2	4	5	4	3.41

1: Not at all, 2: Not like that, 3: Commonly, 4: Yes, 5:Very Yes, Avg: Average 5points, Nru H: Nursing hospital, Ori H: Oriental hospital, Gen H: General hospital, Uni H: University hospital

**Table 8.**  
Degree of mental exhaustion according t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1	2	3	4	5	Avg
Clinic	24	71	69	96	68	3.34
Nur H	1	3	4	7	5	3.60
Hospital	7	35	39	30	26	3.24
Ori H	0	3	9	6	4	3.50
Gen H	2	8	12	10	6	3.26
Uni H	3	11	6	5	4	2.86
etc.	2	2	4	5	4	3.41

1: Not at all, 2: Not like that, 3: Commonly, 4: Yes, 5:Very Yes, Avg: Average 5points, Nru H: Nursing hospital, Ori H: Oriental hospital, Gen H: General hospital, Uni H: University hospital

**Table 9.**

The reason for working is money. according t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1	2	3	4	5	Avg
Clinic	24	71	69	96	68	3.34
Nur H	1	3	4	7	5	3.60
Hospital	7	35	39	30	26	3.24
Ori H	0	3	9	6	4	3.50
Gen H	2	8	12	10	6	3.26
Uni H	3	11	6	5	4	2.86
etc.	2	2	4	5	4	3.41

1: Not at all, 2: Not like that, 3: Commonly, 4: Yes, 5:Very Yes, Avg: Average 5points, Nru H: Nursing hospital, Ori H: Oriental hospital, Gen H: General hospital, Uni H: University hospital

**Table 10.**

Degree of passion for work according to type of medical institution

	1	2	3	4	5	Avg
Clinic	49	125	79	48	27	2.63
Nur H	1	7	5	4	3	3.05
Hospital	10	61	35	22	9	2.70
Ori H	4	5	5	4	4	2.95
Gen H	3	12	16	4	3	2.79
Uni H	8	9	10	2	0	2.21
etc.	1	4	4	6	2	3.24

1: Not at all, 2: Not like that, 3: Commonly, 4: Yes, 5:Very Yes, Avg: Average 5points, Nru H: Nursing hospital, Ori H: Oriental hospital, Gen H: General hospital, Uni H: University hospital

#### IV. 고찰

본 연구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근무 기관에 따른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건강 상태, 번아웃증후군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정형계물리치료 종사자의 설문지를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건강 상태와 번아웃증후군이 근무 기관별로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번아웃증후군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물리치료사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세우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남성 비율은 63.6%이었으며 의원급 기관에서 55.5%가 근무하였고, 35세 이하가 62.3%를 차지하였고, 석사학위 이상이 21.7%이었다. 임상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형도수물리치료는 정형외과 의원뿐만 아니라 신경과 의원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이 확대되어 정형도수물리치료 처방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도 정형도수물리치료 비수가 항목으로 처방하여 실비 보험으로 청구되는 비용이 증가하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Hwang 등, 2021).

건강 자각 상태에 관한 설문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건강하다”라는 설문은 평균 점수는 3.40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후로 나의 건강은 나빠졌다.”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3점이었으며,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나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에 대한 평균 점수는 3.03점으로 나타났고, 각 항목에 대한 근무 기관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5$ ). 물리치료사의 근무 기관에 따른 근골격계 자각 증상에 관한 연구(Lee, 2014)에서는 근무 기관에 따라서 근골격계 자각 증상이 차이가 있었으나 근무 기관에 따른 감정노동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정형도수물리치료에 관한 관심과 선호도가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나고(Park 등, 2020), 정형도수물리치료가 관절가동술과 운동치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신체적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종사하기 때문이다.

번아웃(직무소진)에 대한 설문에서는 “나는 자주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느낀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3.18점으로 나타났다. “나는 내일 출근하기 싫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3.26점으로 나타났다. “나는 육체적으로 지쳐있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3.31점으로 나타났다. “왜 일하냐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는 답이 나온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3.69점으로 나타났으며 근무 기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현재 하는 업무에 대해 어떤 의미나 열정도 못 느낀다”라는 응답에 대한 평균 점수는 2.68점으로 나타났고, 특히 종합병원 근무 기관과 기타 근무 기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물리치료사의 근무 기관에 따라 직업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직무 소진과 연관되어 있다(Yang, 2015). 근무 여건에 따라 종합병원 근무자에서 타 기관 근무자와 유의하게 나타났다.

물리치료사의 번아웃은 전반적으로 중증도의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판단되고 이는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서 육체적 부담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고, 이는 육체적 피로로 발생하는 정신적 피로로 인해 흥미를 잃게 하고 공허감을 느끼게 한다(Huh, 2002). 정형도수물리치료 임상 환경에서는 근무 기관에 따라 치료 횟수와 치료 시간에 크게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실손보험의 수요 확대로 치료비가 상향되고 있어 치료사의 교육 참여와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Hwang 등, 2013).

정형도수물리치료 업무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는 자긍심 요인이 높게 나타나(Park, 2013) 근무 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타 기관에서 근무하는 치료사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치료사와 비교하여 열정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내원하게 되는 고객의 유형이 달라서 차이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리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직무 요구도와 조직 체계가 나타난 연구(Shin, 2013)와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근무자에서도 3.05점으로 열정이 낮게 나타난 이유도 근무 기관에 따른 직무 요구도와 조직 체계 등이 다른 기관과 차이가 나타나 번아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근무 기관별로 근무 강도와 근무 환경, 서비스 제공 환자에 대한 중증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직장 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직무 소진,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물리치료실을 포함한 직장 내에 직원과 환자 모두 존중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병원 문화를 바꾸는 등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건강 증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직무 소진 등이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의 대상자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일일 치료 인원, 치료 시간, 점심시간, 휴식 시간, 주야간 근무, 주말 및 공휴일 근무 등에 대한 근무 환경의 차이, 연봉 및 보너스 등의 경제적인 사항 등의 차이로 인해 정형도수물리치료사가 인식하는 건강 상태나 번아웃증후군에 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정형도수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 번아웃증후군이 근무 기관별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기관별 건강 상태의 변화와 번아웃증후군 관련 내용을 파악

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강 자각 상태는 근무 기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번아웃 요인 중 퇴직 요구도, 출근 비호감도, 육체 피로도, 정신적 피로도, 근무 이유가 급여 때문인 이유에 대한 항목에서 요양병원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일에 대한 열정 항목에서는 대학병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기타 기관이 가장 낮은 열정을 보였다. 특히 열정 항목에서는 대학병원과 기타 기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형도수물리치료사에 대한 번아웃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고, 추후 연구에서는 정형도수물리치료사의 건강 상태와 번아웃증후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무 환경의 차이, 일일 치료 환자 수와 중증도의 차이, 수입 관련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건강 증진 및 번아웃증후군 예방 등의 관리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hola K, Vaananen A, Koskinen A, et al. Burnout as a predictor of all-cause mortality among industrial employees: A 10-year prospective register-linkage study. *J Psychosom Res.* 2010;69(1):51-57. <https://doi.org/10.1016/j.jpsychores.2010.01.002>.
- Brewer EW, Clippard LF.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among student support services personnel. *Hum Resour Dev Q.* 2002;13(2):169-186. <https://doi.org/10.1002/hrdq.1022>
- Huh YB. Job Stress of Physiotherapist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je University. Master Thesis. 2002.
- Hwang SS, Kim MJ, Jeon BS.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in south korea. *J Kor Acad Orthoc Man Physl Ther.* 2021;27(1):41-49. <https://doi.org/10.23101/KAOMPT.2021.27.1.46>.
- IFOMPT. About IFOMPT/OMPT definition. <https://www.ifompt.org>. 2023 (Retrieved on January 6, 2023).

Shin et al.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and Burnout Syndrome of Orthopedic Physiotherapists According to the Working Institution: Focusing o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Kim SH. The Relative Influence of Job Stress on Burnout of Police Officer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2014;16(5):3-25.
- Kim SH. The relative influence of job stress on burnout of police officers according to the type of work. *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2015;22(4):259-278.
- Kim SH, Yu SH. Effect of the empowerment and occupational professionalism of physical therapists on their job satisfaction. *J Kor Acad Ortho Man Phys Ther*. 2023;29(2):11-22. <https://doi.org/10.23101/kaompt.2023.29.2.11>.
- Kim SJ, Seo HC.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burnout of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11):563-576. <http://doi.org/10.35873/ajmahs.2019.9.11.051>.
- Kim WR, Park JY, Yoon YJ, et al. Effects of occupational therapist job stress on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8;12(3):287-295. <https://doi.org/10.21184/jkeia.2018.4.12.3.287>.
- Korea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What is a physical therapist. <http://www.kpta.co.kr>. 2023. (Retrieved on January 6, 2023).
- Lee MS. The Effect of Working Environment and Socio-psychological Factors of Physiotherapists on Musculoskeletal Symptom. Eulji University. Master Thesis. 2014.
- Park SJ, Kim SH, Choi GS, et al. A study on the employment and career preferenc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therapy for orthopedic manual physical therapy. *J Kor Acad Orthoc Man Physl Ther*. 2020;26(2):63-72. <https://doi.org/10.23101/kaompt.2020.26.2.69>.
- Park YG. A study on job and task satisfaction of physiotherapist-focusing on employees in orthopedic manual therapy part. *J Kor Acad Ortho Man Phys Ther*. 2013;19(1):21-31.
- Shin JY. Factors Affecting Work-related Stress among Physical Therapists by Types of Hospital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3.
- Yang SH. The job satisfaction in physical therapists for each type of medical institutes.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15:147-152.
- 논문접수일(Date received) : 2023년 11월 29일  
논문수정일(Date Revised) : 2023년 12월 13일  
논문게재확정일(Date Accepted) : 2024년 03월 25일